

### 물결 따라 살랑 살랑 연등 흐르네 2009 전주 덕진연못 연꽃문화제 성료

아름다운 연꽃으로 유명한 전주 덕진연못에서 '2009 전주 연꽃 문화제'가 7월 18~19일 화려하게 펼쳐졌다.

'천년 전주의 향기 속으로'를 주제로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형, 금산사 주지)와 우리문화연구원(원장 이용의), 전주시가 공동주최한 이번 연꽃문화제는 전주시 출범 6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 개최해 그 의의를 더했다.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시민축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주시 출범 6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전주시 시민동아리회들의 공연한마당, 승무, 범고춤, 나비춤, 바라춤 등의 공연과 연꽃가요제, 기와 단청체험, 연주만들기, 연등만들기, 사경, 연꽃문양만들기, 연꽃사진전시, 다도체험, 민속놀이 체험, 서각체험, 한지 공예 등 다양한 우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7월 18~19일 전주 덕진연못에서 열린 2009 전주 연꽃문화제에서는 바라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국가위기극복과 전북도의 발전,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발원하는 1500여 개의 유등이 덕진공원 연못을 화려하게 수놓은 가운데 전북사암승가회에서 주관한 유등제와 용왕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은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전주에서는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와 함께 덕진연못 또한 부처님의 도량으로 해마다 유등제와 용왕제가 봉행돼왔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부처님을 향한 기도로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진신사리가 일반 전시물?

### 미륵사지 특별전 중 참배하러던 불자들이 고충 겪어

1400년만의 익산 미륵사지 진신사리의 외출이 7월 26일로 끝났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열렸던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에서 소개된 부처님 진신사리의 신성성과 사리장엄구가 보여준 예술성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특별전에 다녀온 불자들은 마음 한 켠에는 사리친견을 했다는 환희심 보다 큰 서운함을 담을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은 6월 27일부터 한달 간 열렸다. 이 기간 동안 특별전이 열린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는 거의 매일이 다사피 고성이 오갔다.

특별전에 다녀온 한 불자는 "특별전을 주관한 문화재청과 전북도·

익산시 등 관계기관의 사리에 대한 몰이해와 미숙한 운영이 불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사리는 불가(佛家)에서 가장 으뜸가는 복진(福田)으로 여기는 소중한 성보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일은 곧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

사리를 성보로 대하는 불자들과 달리, 문화재 담당자들은 사리를 단순한 문화재로 취급하면서 전시관 내에서 일체의 종교행위를 금했다.

지역불교계 인사들은 "진신사리 전시를 결정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라며 "관계기관과 참배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신사리가 전시된 유물전시관

에는 참배할 공간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더러 목탁·죽비를 치거나 정근도 허락되지 않았다.

부처님과 같은 사리를 겨우 합장만 허락된 채 친견해야 하는 불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배승철)'를 구성하고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 승격 시키겠다고 나섰다.

전시관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위원회는 그 명단을 각각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남은 생 부처님 은혜 갚고파"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호남에서 포교사업, 특히 불교대학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사진)을 만났다.

스님은 얼마전부터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최의 경전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신학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강좌에는 50여 회원들이 스님의 강의를 듣고자 모였다.

비단 이곳 뿐 아니라 스님은 향림사 광주불교대학, 관음사 호

직집 지도하고 있다. 특히 기도법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월 1만원의 후원금을 적립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종합학교인 정광중고등학교 결식아 급식 지원, 군부대 지원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방생과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그 이익금을 예치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성오 스님은 동진출가를 했다. 은사인 장조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 낙도어린이 전통문화에 빠지다

#### 도감사서 암태초교생 초청 산사체험 진행

낙도어린이들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월출산 도감사(주지 월우)는 7월 21~23일까지 전남 신안 암태초교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산사체험을 진행했다.

<명심보감>강의, 전통문화체험,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된 행사는 특히 포교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낙도의 섬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는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산사체험은 불교레크레이션협회 전문강사들의 지도로 21일 입제식과 조별모임, 환경 레크레이션, 22일에는 자연생태계 체험, 풍선아트, 자연수영장 물놀이,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도자기 굽기, 주변관광지 탐방이 이어졌다.

월우 스님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지 못하는 낙도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과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큰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삼업 참회하자"

#### 익산 백운사 생전예수재



7월 21일 익산 백운사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

익산 백운사(주지 우성)는 7월 21일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우성 스님은 법문에서 "예수재를 통해 육근으로 인한 삼업을 참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성 스님은 그동안 공석이던 백운사 신도회장에 이수원 거사를 임명했다. 또 이번 가을부터 3개월 과정의 신도기초교육과정을 마련한다며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을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외국인 노동자 위한 체육대회 열려

광주의 대표적 불교 외국인 복지지원 단체 중 하나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7월 19일 비아초교 체육관에서 불교국가 출신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Happy 친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타국에 나와 힘든 노동을 견디며 근무하는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등 외국인들이

참가해 족구, 배구, 피구, 줄다리기 등 열린 경기를 펼쳤다.

체육대회를 후원한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주성 센터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남에게 베푸는 포교열정 가져야

남불교대학, 목포불교대학, 해남불교대학, 조계사, 불교방송, 나주 심향사 등 스님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가서 강연을 하고, 포교 사업을 도왔다.

"벌써 절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은택으로 살았지만 남은 인생과 다음 생은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 살고 싶습니다."

성오 스님이 생각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은 포교에 전념하는 것.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고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지역 어른스님이지만 스님은 포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다. 성오 스님은 전국에서 가장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광주, 그 광주 중 가장 불교의 불모지라 일컫는 광산구에 포교당을 설립하는 등 포교일선에서 정진하는 쉽지 않은 일을 해 왔다.

지난 2004년 스님이 개원한 마하보리사는 주택가에 위치한 포교일선의 장소.

이곳에서 현재 8기 기본교육 수료자까지 불교공부와 수행을

을 2회에 졸업하고 신학문을 일찍 공부한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후에 백양사에서 불교경전외에 의전으로 축량과 제도, 산술 등을 가르치며, '부처런히 읽어서 머리에 넣어야 한다'는 말을 늘 강조했다.

성오 스님은 이런 은사의 가르침을 이제야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도 매일 붓을 잡고, 글을 쓴다. "앞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 끼니를 먹지 못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스님의 바람처럼 사찰마다 매월, 매주, 매일 무료급식소 같은 일들을 해낸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일일 것이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배우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포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호남에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원력으로 삼았으면 해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중앙승가대 첫 학교발전 연찬회

개교 30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총장 태원)가 개교 이래 처음, 교수와 교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승가대는 7월 20~21일 영암 도감사(주지 월우)에서 학교발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교수협의회 회장 종석 스님과 교학처장 보각 스님, 불교학연구원장 미산 스님 등 교수 16명과 교직원 14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미산 스님이 '불교 기본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편안'을, 최종남·유승무 교수가 '교양과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찬회에서 참가자들은 제도적 검토와 실질적인 문제점 등을 나누며 "학술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신설된 기획실(실장 김승철 교수) 주최로 실시된 행사는 향후 학교발전을 위한 진지한 발표 토론의 장으로, 학내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철 중앙승가대 기획실장은 "더 나은 30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승가대에 불자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 구병시식, 중생제도 안식처

# '빙의 치료 대가' 혜봉 스님

## 구병시식, 빙의퇴치 영가천도 지장도량

부처골 지장선원 중정 혜봉 대종사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정신적인 '빙의'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스트레스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영적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심령(心靈)치료이며 그 중의 하나가 빙의의 원인을 풀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빙의 치료 대가' 혜봉 큰스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중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아닌가!!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빙의를 심령치료로서 지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영적치유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험이 살아 있는 소원성취 기도도량 천년고찰 부처골 지장선원'

- 주소 : 경북 군위군 고령면 화북 2리 458-1번지
- 전화 : 054)383-8553 / 011-9585-4908
- 홈페이지 www.jijangsw.com

다음카페 '부처골 풍경소리' <http://cafe.daum.net/jijangsw/www.jijang999.com>

※ 한국심령과학연구회 회원모집 (기공사, 점사, 빙의치료 관심 있으신 분)

### 부처골 지장선원 중정 혜봉 대종사

3권 모두 1만원 보시하시면  
우승해 드립니다.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지장선원]

낙태영가 장애로 인한  
청소년 빙의 퇴치 전문